

# 바다무지개

2016년 3월호

## 3.1절

### 3.1절은 어떤 날 인가요?

1910년,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고 경제를 장악하여 우리민족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국민들에게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유마저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일본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려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일본을 반대하는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체포하고 고문을 했어요.

하지만 일제의 수탈과 같은 압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과 일본에 대한 저항은 3.1독립운동으로 나타났어요.

1919년 3월1일 파고다공원에서 한 학생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무령산 만세소리는 일본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져갔어요.

당시 유관순열사는 만세운동으로 학교(이화학당)이 문을 닫자 고향인 충남 천원군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곳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유관순열사는 이 재판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다.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였으니, 죄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가 어찌 나를 재판하겠단 말이나? 당치도 않은 수작은 집어 치워라!"** 하고 주장하다가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인 간수의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결국 유관순 열사는 굶주림과 병으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가 1920년으로 유관순열사는 17세의 꽃다운 나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어린나이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것이지요. 이처럼 일본은 어린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만세운동을 총과 칼로 진압하여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만 여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며, 그 당시 재판을 받은 사람만도 만 명이 넘는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 " NCS 고급 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

2016-02-03 13:46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3일 서울 송파의 엑스퍼트러닝센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업활용 인사(HR)담당자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기업의 사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일(8시간) 집체교육으로, NCS를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과 재직자훈련이 가능하도록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모바일 기기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제공한다.

차수별 50명씩 총 20차수로 진행되어 1,000명의 NCS 기업활용 인사담당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체교육 시간의 80%이상 출석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앞으로 공단에서 추진 예정인 2016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도 NCS 컨설팅 전문가 인증서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NCS 기업활용 인사담당자 양성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의 민간 기업에서도 실제 NCS가 더 많이 활용·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NCS 기업활용 인사담당자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NCS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NCS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국지식개발연구소 대표는 “본 과정을 통해 NCS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과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진정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공단은 기업·학교·개인이 모두 쉽게 NC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http://www.ncs.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NCS 기업활용 및 관련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NCS활용팀(052-714-86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6. 02. 05



## 현장에서 환영받는 '한국형 도제제도'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학습지원법)'은 학습근로자로 취업한 청년들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최종 평가에 합격하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되는 과정인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일학습병행제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불리며 제조업계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정부 쪽에선 청년실업 문제해결 방안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일·학습지원법은 2014년 입법예고 뒤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도제제도 통해 청년실업 해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세계 15~24세 연령대 젊은이 중 12.6%인 7억 3400만여 명이 실업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역대 청년실업률이 17.5%에 달했다. 금융위기를 혹독히 겪고 있는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60%에 육박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선 스위스와 독일을 예로 들며 "각국이 도제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 미만이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스위스 연방직업능력개발원(SFIVET) 필리프 그네기 원장은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도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직률 낮추고 매출 올리는 일학습병행제

2015년 12월 말 현재 5700여 개 국내 기업에서 1만 2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에서 7만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학습병행제는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와 특성화고교, 전문대와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를 시행 중인 4년제 대학 13곳은 취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바꾸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지난 1년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많은 기업을 방문했다. 현장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기업 내부에서 체계 없이 진행되던 신입 직원 교육을 이 제도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 특화된 핵심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수인력을 직접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겪는 만성적 구인난을 해소해 매출 신장과 이직률 감소를 함께 달성한 사례도 있다. 금형제조사 아진산업은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한 후 매출이 50% 늘었고, 이직률은 260% 하락했다.

정밀기계부품사 거산정밀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전수하던 핵심기술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내국인 학습근로자에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 일·학습지원법 제정되면 기업과 청년 모두 행복

현장에서 만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은 일학습지원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관련법이 없으면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학습근로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다. 자기 진로를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일학습지원법이 제정돼야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취득한 각종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박영범

## 2016년 베트남 GDP 6,9% 성장 전망품

- 1월 27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후퇴, 재편성, 반등”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는 베트남 경제 전망이 갈수록 밝음과 함께 2016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9% 전망함.
- 이는 이전에 전망한 6,6% 보다 더 높음. 이러한 전망과 함께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경제 성장한 국가임.
- 1월 27일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경제 발표회에서 베트남의 전망 부분이 강조됨.
- 스탠다드차타드의 경제학자들은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며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를 희망함.
- 실제로, 2015년 베트남은 목표치 보다 높은 6,7%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또한 6,6% 전망 수치 보다 더 높았음. 해당 수치는 2013년 새로운 GDP 계산법을 적용한 이래로 가장 높은 성장임.
- 베트남 스탠다드차타드 Nirukt Sapru 이사장은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 장소이며 2016년에도 많은 FDI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함. “우리는 밝지 않는 글로벌경제 속에서 베트남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동화 환율 고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최근 결정은 갈수록 변동하는 시정정세에 대한 대응에 보다 유연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소비 부문은 2016년 베트남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은 기여할 것이며 바로 다음으로 투자가 될 것임. 투자는 올 해 FDI사업 실행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15년 보다 더 성장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은행은 전망함. 하지만 잉여가치는 2016년에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27 Jan, 2016]

## 2016-2020년 ODA 사용 우선 분야

- 2016-2020년 ODA 지원은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과학, 환경 보호 분야에 초점을 맞출 예정.
- 총리는 “2016-2020년 ODA 및 국제경제기구 우대대출자본 유치, 관리 및 사용 방향”계획안을 승인.
- 2016-2020년 ODA 계획안은 ODA 자본 사용, 관리, 유치에 있어 정부와 당의 방향 및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문서로 나타냄. 국제경제기구의 우대대출 자본금은 각 5년 10년의 장기 프로젝트인 2011-2020년 사회경제 발전전략과 2016-2020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사용.
- 2016-2020년 ODA 계획안은 체결된 ODA자본 및 국제경제기구의 우대대출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전략, 정책 그리고 ODA자본 관리 및 실행 능력 강화, 체제, 조직 강화에 대한 동기화 솔루션 등의 동향이 포함되어 있음.
- 2016-2020년은 ODA 자본과 국제경제기구의 우대대출금을 베트남 지방에서 개발 협력이 이뤄지는 각 건설 과정 및 정책 책정과정 등 국가 및 국제적 넓은 영역에 사용하여 베트남 정부의 정책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
- 2016-2020년의 주요 업무는 각 프로젝트인 개발공사, 경제발전 요구사항충족 등을 정확한 일정과 기간에 맞춰 성공적으로 완성해야하고 동시에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전제와 자본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내 우선 영역 원칙지도에 의거한 우대자본금과 ODA 자본금 사용 및 관리 조치와 정책이 필요
- 2016-2020년 ODA 계획을 혁신적인 전략으로 삼아 인프라 구축과 연구 지원, 경제발전 정책 구축, 사회 문화의 성장, 인적 자원,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지대 성장지원, 지역 공공 지원 등 민간 파트너십(PPP)의 형태로 국가의 투자 자본을 원천으로 사용
- 2011-2015년 ODA 계획안은 2012년 1월 19일 총리의 결정 하에 제106/QĐ-TTg로 발행에 성공 이후, 베트남과 국제경제기구 공동체는 5년간 사회 개발 협력 관계로 ODA 자본 및 국제경제기구의 우대대출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며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31 Jan, 2016]

## FTA, 인수합병(M&A)시장에 새로운 봄을 일으키다

- 2016년 인수합병(M&A) 시장 전망은 밝음.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인수합병 기회가 증가하여 새 해 좋은 소식들을 기대 중임.
- 증권정보 조사회사 StoxPlus가 최근 발표한 “베트남의 인수합병(M&A)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공산품과 서비스 및 섬유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베트남은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세계 시장에 더 깊이 통합 될 것임.
- 베트남은 2015년에 4 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유럽연합(EU), 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이에 해당됨. 해당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를 거듭 할수록 인수합병(M&A)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증가시킬 것임.
-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인수합병(M&A)를 통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는 베트남이 체결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얻기 위함임. 한국, 일본, 태국의 움직임에 주목할 만함.
- 따라서 섬유업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이 급증할 것임. 플라스틱 산업을 예로 들자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으로 인해 베트남으로 수입 되는 플라스틱 제품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 발효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관세가 5%에서 무관세에 가깝게 감소할 것임. 낮은 수입관세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 운영 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2015년 한국산 플라스틱 수입액은 12억 달러에 달했음.
- 이러한 사업 이익을 고려하여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베트남 합병 회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됨.
- StoxPlus는 2015년에 341건의 인수합병(M&A)이 성사되었고, 이는 52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음. 이는 2014년 277건에 비해 23.1% 증가하였고, 2014년 거래액인 47억 4000만 US\$와 비교하여 9.7% 증가한 것임.
- 수치를 살펴보면, 인수합병(M&A)의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가 늘어난 덕분에 500만 US\$에 달했지만 2015년에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임. 98건 만이 인바운드 거래였지만, 이는 총 거래금액의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음.
- 이어 StoxPlus는 부동산 부문에서 20건의 인수합병(M&A)이 16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지난 해 인수합병(M&A) 시가총액의 69%를 차지하며 해외 투자자들을 유입하고 있다고 보고함.
- 가장 중요한 거래로 Gaw Capital Partners(거캐피탈파트너스)가 6억 달러에 달하는 Empire City의 지분 50%를 인수한 것을 포함하여, Chow Tai Fook(주대복 周大福)이 3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호이안 프로젝트의 78%를 매수한 것과 Creed Group이 2억 달러에 이르는 An Gia Investment의 주식 20%를 확보한 사례가 있음.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8 February 1-7, 2016]



## 2016년 베트남의 희망

-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지난 2015년 사회-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을 통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짚어냄.

### 세계은행

- 중국을 제외한 2015년 동아시아 지역 성장속도는 각 원자재 수출국(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포함)의 성장이 침체 했지만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과 태국에서의 부분적인 회복을 통해 작년과 비슷한 4,6%에 머무름.
- 베트남 경제는 국내수요 및 원자재 수출 증가 등으로 지금껏 사업 환경 변동에 대한 상당히 좋은 대처를 선보였고 낮은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은 소비를 촉진 시켰음.
- 은행 신용의 재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 정책은 낮은 소비자 물가를 기록함. 베트남은 사업 환경 전체 순위 189등 중 93위에서 90위로 상승함.
- 2015년 정부는 사업 환경 개선에 있어 의결서 19/NQ-CP/2015를 발행함. 이를 통해 세금납부기간은 121,5시간, 수출입 수속기간은 매회 13-14일로 단축시켰음. 하지만 베트남의 경쟁력은 여전히 ASEAN-4 가입국가의 평균이하에 속함.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환경 및 인프라, 늦은 제도적 구축 등이 있음.
- 베트남 경제의 중간 전망은 강한 내수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출 및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비교적 긍정적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각국 사이에 베트남은 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적은 경제기반이자 가공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또한 TPP는 베트남의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무역 확장에 도움을 주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나날이 베트남 제품은 중국의 수출 국가인 즉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대사관

- 베트남과 미국의 외교가 이뤄진지 20년 만에 베트남 응우옌 푸 쯁 총서기의 공식적인 미국 수도 워싱턴 첫 방문이 이뤄지며 두 국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맞이함.
- 지난 20년간, 베트남은 시장경제개혁과 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 구체화를 통해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베트남은 국제사회에 가입 후 현재 긍정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장함. 미국과 베트남은 해양 안보, 재난 구호, 야생 동물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중요 영역에서 협력을 이룸.

## 유럽 연합

-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각 측의 시장접근강화를 통해 양측에 경제 발전과 사회에 큰 공헌 및 양측으로부터의 고품질 투자 물결을 가져오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원함.
- 베트남은 93만에 달하는 인구, 특히나 젊은 노동력과 구매성장력을 갖춘 큰 가능성을 지닌 시장으로 이번 협정은 EU에게 농업,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더 큰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게다가 EU-ASEAN의 전체적인 무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 EU는 베트남의 법률 제도적 개혁과정을 환영하여 2013년 헌법을 시작으로 EU는 베트남의 법률제도개혁실현을 지원하고 체제 권고에 맞춰 베트남으로부터 보편적 정례 검토를 받음.
- EU는 연합국의 지속적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각 주요 분야인 빈곤 감소, 보건, 사법 및 재판권, 교육 품질 향상, 공공 재정 관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와 환경에 특별히 노력을 기여할 예정임.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14 Feb, 2016]

## 가전제품 소매업자, 사업 확장 계획

- 많은 가전제품 소매업자들이 이번년도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그들의 정지된 계획이었던 더 많은 상점 오픈을 재개하고자 함.
- Thien Hoa 가전, 가구 회사의 임원 Tran Tan Hoang Hau씨는 5월중순 중으로 판매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아울렛 문을 열 것이나 정확한 매장의 수는 밝히지 않았음.
-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연기되었음. Hau씨는 이런 장기간의 투자는 세세하게 계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 다른 가전제품 소매회사 De Nhat Phan Khang회사 마케팅 중역인 Tran Dinh Luu씨는 12월 2일에 4곳의 매장이 새로 문을 열 것이라 전했다.
- 작년에 Thu Duc군, 7군, Go Vap 3군에 전자제품 체인점이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그 계획은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연기됨.
- 회사는 다시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Phong씨는 밝혔음.
- Phan Khang(전자기기 회사)은 호치민시 그리고 인접한 Tay Ninh성, Long An성, Dong nai성이 주요 표적시장임.
- 그러나 Phong씨는 가격이 회사가 매장 규모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음. Phong씨는 곧 열릴 매장들은 각각 1,200㎡이며 현재의 매장들 보다 규모가 작고 처음 계획의 절반의 규모라고 발표했다.
- 가전제품 소매업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들의 재시작은 예상보다 높은 설 연휴기간의 판매량, 부동산 시장의 회복, 거시 경제지표에 따른 결과물이라 했음.
- 또 다른 소매체인 업체인 Dien May Xanh은 이번년 시장 성장에 희망을 걸고 있음.
- 그 회사는 하노이지역에 최소 15개 매장과 호치민시 외곽지역으로의 매장확장을 고려중이라고 Doanh씨는 전했다. 현재 15곳의 매장을 호치민시에 보유중임.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123 Feb 22, 2016]

## 설 연휴 이후 이직 현상 여전해

- 설(Tet) 연휴 이후 직원들이 대거 이직하는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첫해는 아님. 많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어 회사들은 다수의 대체 인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
- 호치민 Tan Thuan 수출 가공 지역에 있는 TN 의류 유한책임 회사는 회사를 그만둔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어렵다 함. 몇 천 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기간 이후에 매우 적은 숫자의 지원서를 받음.
- Dai Viet Electronics 유한책임 회사와 Tien Loi 의류회사도 상황이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직원을 구인 중임. 하지만 높은 급여와 추가 인센티브를 제의해도 그들은 충분한 인원을 끄는 데 실패함.
- “우리는 큰 계약을 여러 개 맺었고, 그중 몇 개는 4월 30일까지 계약된 제품 수량을 전달해야 함. 하지만 우리 회사 근로자의 70%만 회사에 돌아왔음.” 라고 Tien Loi 대표 Nguyen Thanh Hung는 말함.
- 호치민 시 인력시장정보센터(FALMI)에 의하면 구정 이후에 도시 내에 있는 기업들은 19,000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대부분이 육체노동자라 함. 영업 마케팅, 디자인, 정보 통신, 기계 및 전기 기술, 식품 가공, 의류 및 가죽 신발 제조 그리고 배달 서비스 등이 노동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호치민 시의 공업단지 및 수출 가공 지역 대표들은 많은 기업이 올해 내내 전달되어야 할 주문을 여럿 계약했으나, 근로자들의 이직하는 현상에 의해 이런 사업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것이라 함.
- 이 문제는 호치민 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 남부 Dong Nai에 있는 기업들도 같은 근로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복지부(DOLISA)는 뗏 이후 노동 부족률이 전년 대비 30% 올랐다 하고 현지 기업들은 31,000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함.
- JobStreet.com 이 여러 공업단지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66% 이상의 근로자들이 구정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하고 그중 49%가 긴 연휴 끝나자마자 이직을 했다고 함.
- 베트남 JobStreet.com 국장 Angie Phang은 특히 구정 때에는 쾌적한 환경과 매력적인 급여 및 보너스에 대한 정책이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함. 하지만 인터뷰한 근로자의 16.7%는 뗏 보너스를 받지 못했고 35.6%는 자신들의 1달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너스를 받았다 함. “베트남에 있는 많은 기업은 유능한 근로자들을 끌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보너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함.” 라고 Phang은 덧붙임.
- FALMI의 부사장 Tran Anh Tuan은 비록 많은 기업이 뗏 연휴 이후에 근로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보너스와 특별 인센티브 등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부족현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 함.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1 Feb 22-28, 2016]

## 하노이시, 3월 1일부터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진행

- 하노이시 교통운송청 정보에 따르면 2016년 3월 1일부터 하노이시 교통운송청은 정식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시작함.
- 먼저 2월 25일, 호치민시 교통운송청이 정식으로 서류 접수 및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함.
- 국제 운전 면허증은 1968년 도로교통 관한 협약 73개 국가에서 사용가능함. 이는 해외출장, 유학, 외국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것임.
-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은 16 Cao Ba Quat, Ba dinh, Ha Noi로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면 됨.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양식에 따른 국제 운전 면허증 신청서 2) 사용 가치가 남아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거주증(외국인의 경우) 등임. 이 밖에도 대조하기 위해 사용 가치가 남아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내운전 면허증을 지참해야함.
- 또한 하노이시 교통운송청은 제3의 서비스 전달 수준에서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발급 절차에 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서류 온라인 작성, 온라인 서류 검사, 이동 시간 감소 등으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28 Feb, 2016]

## 하노이의 일반 노동 인력 부족현상 이유는?

- 2016년 초, 중견 기업의 인력 채용 수요는 많아졌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나 일반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짐. 2월 23일 하노이 일자리 서비스센터 주최로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남.
- 구정 이후 하노이 일자리 서비스센터는 32개 기업 참가 및 679명 채용 수요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함.
- 이번 박람회에서 각 기업들은 고인력에 대한 인력채용 수요가 일반 노동 인력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약 40%(265/676 정원)의 비중을 나타냄. 이어서, 중급인력 31.6%(214/676정원), 전문대 수료 인력 18.3%(124/676정원), 학사 수료 인력 10.2%(69/676정원) 차지했으며, 마지막은 석사이상 수료 인력으로 약 0.6%(4/676정원)의 비중을 차지함.
- 하노이 일자리 지원서비스 센터 Nguyen Toan Phong 센터장의 2016년 초, 하노이 인력 채용 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음. 특히나 일반 노동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함.
- Nguyen Toan Phong 센터장은 하노이에 많은 중·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보다 쉽게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음. 이에, 근무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추세임. 이러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하노이의 일반 노동 인력 부족에 영향을 끼침.
- 일반 노동 인력의 월 평균 수입은 3백-4백 VND이며 영업 사원 및 학사 과정은 4백-6백동임. 이 밖에,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규정성과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23 Feb, 2016]



## 주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관련 신규법규 (Decree 11- 2016년 4월 1일 발효)

하만층

법무법인 비즈링크 한국변호사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Decree 11/2016/NĐ-CP (신법 Dcree11) 7.2 조 (e)항에 근거하여,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1년의 기간 중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30 일이상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1년의 기간 중 총 90 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Decree 11. Article 7. The cases in which the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applying for the work permits**

2. Other cases in which the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work permits, including:

- (e) Coming to Vietnam to work as an expert, manager, executive director or technician for a working period under thirty (30) days and for a total cumulative period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in any one (1) year

또한 Dcree11 7.2 조 (a)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2013년 1024년 노동법 관련 법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조항임)

### **Decree 11**

#### **Article 7. The cases in which the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applying for the work permits**

2. Other cases in which the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work permits, including:

- a) The workers are internally reassigned in the companies which engage in 11 service industries in the Vietnam's WTO commitments on services, including: business, communication, construction, distribution, education, environment, finance, health, tourism, culture, entertainment and transportation;

예를 들면 베트남에 건설 혹은 유통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가 한국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30 일 이상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허가서가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가 한국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한국인 근로자가 30 일 이상 일을 한다면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지만 WTO 협약에서 언급된 총 11 개 분야의 베트남 투자법인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에서 면제 된다는 의미이므로 4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신규법령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노동허가서 발급 담당관청에서 11 개 분야의 경우

노동허가서 면제 승인을 잘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4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신법에서 다시 한 번 11 개 영역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면제된다고 언급하고 있음으로 추후 담당관청이 어렵지 않게 승인을 해 줄 수 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허가서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법률 Decree 88/2015/ ND-CP 에 의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최고 7 천 5 만동 벌금과 3 달간의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당국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법 **Article 10.8 Decree 11**에 의해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신규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노동허가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2년의 기간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2년의 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 직장 내 직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새롭게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경우 신법은 직급 변경에 따른 새로운 직급과 관련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지 아니면 기존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Application files requesting issuance of a work permit in a number of special cases**

### **Decree 11 Article 10.8**

- In the case of a foreigner who already has a currently valid work permit and who is working for another employer in the same working position recorded in such work permit in accordance with law, the application file shall comprise the documents prescribed in clauses 1, 5, 6 and 7 of Article 10 in new Decree together with the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issued work permit;
- In the case of a foreigner who has a currently valid work permit and who is working for the same employer but in a different working position from that specified in his or her work permit in accordance with law, the application file shall comprise the documents prescribed in clauses 1, 4, 5, 6 and 7 of Article 10 in new Decree together with the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issued work permit;
- In the case of a foreign worker has already had work permit pursuant to Decree 102/2013/ND-CP, when he/she applies for new work permit, he/she must have a document proving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s under new Decree.

# 강사·자원봉사자 간담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전반기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실시 했습니다. 항상 센터를 위해 참된 봉사과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와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한 해 더욱 멋지고 행복한 센터를 만들어나가고자 센터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하며 토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6. 01. 31(일) 15:00~17:00

장 소 : 106호

- 주 제 : ① 2016년 교육문화팀 사업계획 공유  
② 2016년 교육일정 및 강의 계획서 제출 건  
③ 2016년 신규 사업 및 행사 아이디어 토의  
④ 기타 의견 수렴 및 토의, 개선안 도출



# 네팔 커뮤니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네팔 외국인근로자들과 센터가 함께하는 모임인 EPS 바다무지개 네팔 커뮤니티 행사가 있었습니다.

긴 연휴동안 더욱 서로를 챙겨주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네팔 커뮤니티원들을 보면서 먼 이국에서 맞이하는 새해를 함께 기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네팔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경품을 추첨하는 기분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 시계, 고급 디지털 카메라 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에 더욱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 2016. 02. 09.(화) 14:00~16:00

장소 : 다목적 홀

대상 : 네팔 외국인근로자 기리 나라안 외 20명

## 무료 이미용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 봉사미회분들과 함께 하는 외국인력분들을 위한 제21회 무료 이미용 봉사 서비스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른 시간 부터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외국인력분들을 위해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경남봉사미회단 덕분에 외국인력분들이 더욱 멋지고 깔끔한 멋쟁이가 되었습니다.

일 시 : 2016.02.14(일) 08:40 ~ 12:4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봉사단체 : 경남 봉사미회  
참여인원 :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쿠잇 외 14명

## TOPIK 합격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4회 TOPIK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TOPIK 시험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TOPIK 시험일정에 맞추어 시험에 접수하고 응시하여주신 외국인력분들의 열정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합격증을 수여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다음 시험에서는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더 TOPIK3급 이상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2016년 2월 14일 12:00~

장 소 : 상담실

대 상 : TOPIK 시험 합격자 중국 HAN YING 외 34명



## 바다무지개 농구동아리 농구관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LG 세이커스 농구단과의 사업협의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농구 무료 관람을 실시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호응속에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특히 필리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해 농구의 열기가 뜨거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시: 2016. 02. 14(일) 16:00~

장소: 창원실내체육관

참여인원: 필리핀 근로자 에이드리안 외 29명



# 1,2월 직원 생일파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월 생일을 맞이하신 직원분들, 상담원분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2016년 2월 직원 화합day를 실시했습니다.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직원간의 화합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정순 팀장님, 김소윤 대리님, 박은정 상담원, 문충기 사원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일시: 2016년 2월 17일 (수) 17:00~

장소: 상담실

대상: 센터 전원 (상담원,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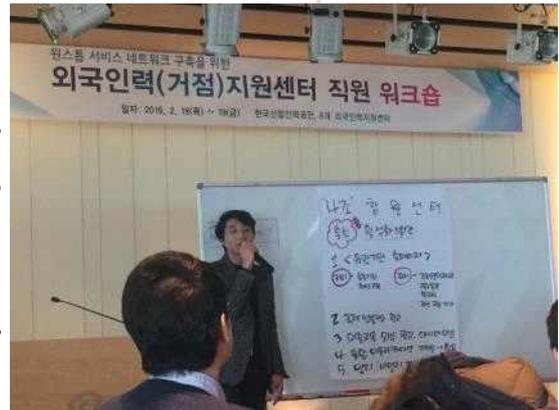
# 외국인력지원센터 Workshop

2016년 02월 18일~02월 19일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국인력(거점)지원센터 직원 워크숍'을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02월 18일 첫째날 '우봉우'국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16년 신규 귀국지원사업계획,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지원센터의 업무연계방안 발표 및 논의, '15년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결과 피드백, 센터별 방문상담 확대방안 발표, 마지막으로 센터별 특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로 첫째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02월 19일 둘째날 센터 사업 언론홍보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활용방안에 대해 조별토론 및 발표시간을 가졌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방향(외국인력정책 방향 등)에 대한 안내로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 전체 외국인력(거점)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워크샵을 통해 공단과 센터, 센터와 센터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고 알찬 워크샵이었습니다.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2016.02.21 오후 2시부터 4시  
까지 마산의료원에서 무료진  
료가 있었습니다.  
수혜인원은 58명이며 다음 달  
진료는 3월 6일 오후 2시입니  
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참여  
하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화재 예방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마산동부경찰서와의 사업 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교통사고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모범적인 지역민으로 함께하며 지혜를 배우는 유익한 교육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6. 02. 21(일)  
11:00 ~ 12:00

장 소 : 다목적 홀

내 용 :

- 교통사고 사례교육
- 화재예방 대응방법 및 팁 (시청각 자료)

참여인원 : 외국인근로자 60명



# 마산동부경찰서 모범 외국인근로자 표창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마산동부경찰서와의 사업협의를 통해, 모범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상품과 격려금 전달식을 실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한국 생활을 이어오며, 타 외국인근로자와 국가커뮤니티의 모범이 된 두 분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일 시 : 2016. 02. 21(일) 12:00~

장 소 : 다목적 홀

내 용 : 모범외국인근로자 격려금 및 상품 전달

대 상 :

- 방글라데시 근로자 모니르칸
- 중국 근로자 복춘호

# 제1회 바다무지개 탁구대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1회 바다무지개 탁구 동아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하신 외국인근로자분들 모두 뛰어난 탁구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탁구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제1회의 우승자는 베트남 근로자 반꾸영 님, 준우승자는 베트남 근로자 오반빈 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시: 2016. 02. 28(일) 15:00~17:00

장소: 다목적 홀

참여인원: 베트남 근로자 오반빈 외 5명

## 제목 : 사업장변경 관련 상담.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 ○ 상담개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동안 사업장에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하였음.

### 1. 사실확인 및 결과

- 사업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N씨가 2015년 본국 휴가를 간 후 사업장변동신고를 하였음.
- 근로자는 사업장변동 구직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사업장변동정정신고를 요청하여 2016년 01월 1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니 사업장에서 해결해 줄테니 기숙사에서 며칠 기다리라고 하여 근로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사업장 변동 정정이 되길 기다림.
  -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아 2016년 01월 28일 사업장에 근무 여부를 물으니 2016년 02월 03일까지 기다리라 하여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음.
- 근로자는 2016년 02월 04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사업장에 전달함.
  - 사업장에서는 2016년 02월 03일 근로자와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센터에 사업장변동정정신고를 함.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2016년 02월 11일에 출근하라고 함.
  - 아침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지만 사업장변동정정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근무가 가능하다고 오전 근무를 못하게 하였음.
  - 사업장에서 확인한 후 야간(오후8시)부터 근무하도록 하여 근로자는 야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함.

### 2. 상담포인트

- 근로자의 휴가기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 사업장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가기 전에 근로자는 반드시 휴가원을 제출해야 함.

### 3.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장 및 재학생 인터뷰

2016-02-24

글·사진 : 이윤지(우즈베키스탄 사무소 ODA 청년인턴, 황인성 부소장)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자랑 좀 해~주세요



▲ 교실에 들어가기 전, 정문 앞에 있는 우즈베키스탄-한국 기념비

코이카는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에 방문해 원장님, 재학생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한 졸업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문서에서만 보던 그들의 긍정적인 지표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 원장님 Interview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장 라흐한 이브라지모프)



[사진] 진지하면서도 다정한 모습, 두 가지 반전 매력을 모두 갖고 있는 라흐한 직업 훈련원장 사무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장 라흐한 이브라지모프(Ravshan R. Ibragimov)입니다. 19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에서 몸을 담고 있다 2012년 직업훈련원 설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은 어떤 곳인가요.**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542명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교수진들의 역량을 꼽고 싶은데요. 현재 27명의 교수들이 강의와 실습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 60%가 각 분야에서 전공의 석사과정을 거친 교수들이며 2011년 7~8월 부원장을 비롯해 3명의 교수들이 한국 코이카 연수에 참여해 한국의 해당 기술을 전수받으며 역량을 발전시켰습니다.

**Q. 코이카 지원 직업훈련원의 성과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 있어 코이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준 기회로 건립된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은 현재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앞서간 장비 공급입니다. 한국제품은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술학교에 해당 장비들을 공급하는 데에는 매우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코이카의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받고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 기술자를 가르치며 설치부터 사용까지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즈베크의 기술학교(College)는 약 1500개 이상이지만 기계가 낙후되어 있고 이론 위주 교육으로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훈련원은 이와 달리 한국의 시스템을 지원받아 한 학기를 이론 30%, 실습 70%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직업훈련 습득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코이카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단원들을 파견해 이러한 한국 교육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현재 기계·전기·IT·자동차 4개 공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즈베크 산업 수요에 맞춰 엘리베이터 기술과 수도시설 관리 공과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센터 설립 후 3년 동안 GM사, 삼성, 현대, 기아 등 많은 사업기관들과 기업에 적합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협업해왔습니다. 현재 안디잔 지역의 자동차 공장과 사마르칸트 지역에 MAN 자동차공장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해 직업훈련(OJT)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고 바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부 지방에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해당 기술에 직접적인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 ▶ 재학생 Interview

(재학생 야드가로프 하산과 부란바예바 세바라)



[사진] 타슈켄트 직훈원 재학생들, 오른쪽부터 야드가로프 하산과 부란바예바 세바라 각 학급의 우등생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남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드가로프 하산(Yadgarov Xasan)이고 한국 나이로 26살입니다. 직업훈련원에서 IT를 공부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부 센터를 찾았는데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을 소개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 : 제 이름은 부란바예바 세바라(Buranbaeva Sevara)이고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저도 노동부 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원을 알게 되었고 IT공과에서 포토샵을 배우고 있습니다.

Q. 다른 기술학교나 직업훈련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남 : 교육 강도가 매우 세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무조건 공부를 하게 만들어 전공을 확실히 배우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 : 저는 다른 기술학교에서 3년 동안 포토샵을 배웠지만 기술이 매우 기초적이어서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포토샵을 배우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 Q. 가장 크게 느낀 점이나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 :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운다는 생각 보다는 학교와 집만 오가는 것었다면 이곳에선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저희 형과 같이 건축 관련 디자이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 : 하산과 비슷한데요. 공부만 하다가 졸업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관심도 생겨 현재 방과 후에는 한국어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졸업 후에는 한국 관련 기업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 ▶ 졸업생 Interview



[사진] 직훈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 왼쪽부터 티무르 보리바예브와 오이벡코심조노프.

## Q. 졸업생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기 :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벡 코심조노프(Oybek Kosimzonob)입니다. '13년도 1월에 입학해 10월에 졸업했고 현재 토요타(TOYOTA)에서 컴퓨터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학을 전공했는데 직업훈련원을 알고 난 후부터는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No.1 엔지니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IT : 저는 작년 10월에 졸업한 티무르 보리바예브(Temur Boribaev)입니다. 현재 자연보호부처 산하기관 출판사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가 대세인데 해당 분야를 직업훈련원에서 전공하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말, 말!

전기 : 자기가 선택한 공과를 직업훈련원의 커리큘럼대로만 따르면 취업에 바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 엔지니어의 수가 많지 않아 관련 분야가 매우 유망해 보이는 만큼 열심히 배워서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IT : 저도 후배들에게 우선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IT 분야는 많은 기술 중에서도 발전된 분야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서 모두 우즈베키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CFC 3월 행사 안내

## 첫째 주

- 직무능력향상 학습의 날 Weduday 실시
- 토요일야간상담(18:00~21:00)

## 둘째 주

- 직무능력향상 학습의 날 Weduday 실시
- 토요일야간상담(18:00~21:00)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진주 사랑의집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5:00~17:00)-센터 상담실
- 바다무지개 탁구동아리 실시(2회)-다목적홀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장군전 주변
- 출입국사무소 방문상담(09:00~17:00)
-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 네팔 커뮤니티(19:00~)-거제대학교

## 셋째 주

- 출입국사무소 방문상담(09:00~17:00)
- 통영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 직무능력향상 학습의 날 Weduday 실시(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토요일야간상담(18:00~21:00)

## 넷째 주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진주 사랑의집
-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 (주)견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제 1차 'Run up' workshop 실시
- 토요일야간상담(18:00~21:00)

## 다섯째 주

- HCC(12:00~13:00)-교육실 및 다목적홀
- (주)견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직무능력향상 학습의 날 Weduday 실시
- 토요일야간상담(18:00~21:00)

## CFC와 함께해요😊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mailto: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http://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